

술과 雜學



吳 蘇 白

(韓國弘報研究所 · 代表)

술에 얽힌 어록과 시를 옮겨본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활력소가 된다. 하지만 무절제하게 마시면 화를 불러 일으킨다. 이래서 술은 필요악(必要惡)인지도 모른다.

애주가는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 거나하게 취하는 사람이 최상의 술꾼이다. 현(絃)이 없는 악기를 뜯으며 즐기던 도연명(陶淵明)처럼, 술의 정서는 술을 마실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즐길 수 있다.

-입어당-

-거나하게 취하는게 최상의 술꾼이다. 이렇게 마시는 술은 최상의 활력소가 된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하며, 마음을 털어놓게 한다. 이리하여 술은 하나의 도덕적인 성질, 이를 테면,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 된다.

-칸 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은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가. 다만 문제는 그 정도에 있다.

술과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화해하고 있는 사이좋은 투사와 같은 느낌이다. 진편이 이긴 편을 늘 너그럽게 포용한다.

-보들레에르-

-술을 마시는건 좋다, 지나치게 술에먹히면 화가 된다.

꽃사이에 앉아 혼자 마시자니
달이 찾아와 그림자까지 셋이 되었구려
달과 그림자는 술을 못마셔도
그들 더불어 봄밤을 즐기리

-이 태백-

目 次

- 술과 인생 · 語錄
- 아프리카의 술나무(酒木)
- 두달 동안 취한 사나이
- 양주(羊酒)와 마유주(馬乳酒)
- 유명 사찰의 술과 주점
- 350년 전통의 술잔
- 주정 끝 여덟가지
- 당신의 술은 어떤 것인가
- 배리의 老酒鋪 · 惡연한 酒憲
- 舊韓末의 酒稅法, 酒造工場

-이태백(주태백)의 시에는 술의 향기가 늘 그윽하다.

첫 잔은 갈증을 면하기 위하여, 둘째 잔은 영양을 취하기 위하여, 세째 잔은 유쾌하기 위하여 마시는데, 네째 잔부터는 발광하기 위하여 마신다.

-서양 격언-

-술은 일종의 카타르시스 작용이다.

술은 참으로 아름다운 천록(天祿)이다. 향사(享祀), 기복(祇福), 부쇠(扶衰), 양로(養老) 등 백례(百禮)의 모임에 술이 아니고서 일을 이룰 수가 없다.

-반고(班固)-

-술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와 이어진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꽃 피자 술 얻으면 벗 생각나네
언제나 꽃 아래 벗 다리고 완월동취(玩月同醉)하려노.

-이 정보(李鼎輔)-

-벗 있는 곳에 술 있고, 술 있는 곳에 벗 있다.

사람보다 술이 좋더라
몸이 불타 이글거리면
위에 갈난눔 없어 좋더라.
비분(悲憤)보다 차라리 술에는 위엄(威嚴)이 있어
내가 술인지 술이 나인지
거인이 된 것 처럼 자랑스럽구나.

-정 훈(丁薰)-

-“사람보다 술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만, 술은 사람을 속이지는 않는다.

다.

공석(公席)에서 마시는 술은 천천히 마셔야 한다. 마음놓고 편하게 마시는 술은 점잖게 호탕하게 마셔야 한다. 병자는 적게 마시고, 슬픔에 있는 자는 모름지기 취하게 마셔야 한다.

-임어당-

-때와 장소에 따라 마셔야 하는 주도(酒道), 그걸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첫 맛은 피를 빨아들이는 박쥐처럼, 쿡쏘는 것이 마취제와 비슷했다. 그러나 마실 수록 차차 단맛이 들고, 나중에는 아주 맛이 좋았다.

-스타인 백-

-사람에 따라 술맛을 느끼는 꿀은여러 가지다. 정말 좋은 술은 독하면서도 구수하다.

술은 입으로 들고
사랑은 눈으로 든다
우리가 늙어서 죽기전에
참(眞)이란 깨달을 건 이것 뿐이다.
나는 왜 입에 잔을 대고
그대를 바라보고 한숨짓는가.

-에이즈-

-술의 찬가도 이쯤되면 일품이 아닐까.

주신(酒神)처럼 강력한 것이 또 있을까. 그는 환상적이며, 열광적이고 즐겁고도 우울하다. 그는 영웅이요, 마술사이다. 그는 유혹자이며 에로스의 형제이다.

-헤 세-

-술은 마술사, 술은 에로스의 형제로과녁을 쬐었다.

첫 쟁잔은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된다. 둘 쟁잔은 술이 술을 마시게 된다. 세 쟁잔 부터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만다.

—범화경—

—오묘한 진리가 담겨있는 불교의 말씀이다.
타율적(他律的)인 술마심을 타이르고 있다.

술은 서서 마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하면 오래 견딜 수가 있다. 이것은 물론 서서 견딜만한가 안한가에 달려 있지만, 그 뒤는 남이 부축해줄터 이니까.

—호메로스—

—앉아 마시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는큰 참고가 될 것이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毒酒)는 사람을 함부로 떠들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에 유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구약잡언—

—지혜로 마셔야 한다는건 옳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는게 술이니라.

아프리카의 술나무(酒木)

몇년전 아프리카의 중부 지방 하시강유역의 '브라'라고 하는 마을에 주암(酒岩)이 아닌 '술나무'가 발견되어 큰화제가 되었다. 이 마을에는 '실로'라는 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이 나무에서는 오랜 세월이 걸쳐 어떤 액체가 분비되고 있다. 이 액체는 매우 좋은 향기를 뿜는다.

어떤 사람이 향기로운 이 액체를 맛보고 깜짝 놀랐다.

액체에는 강한 알콜 성분이 있을 뿐아니라 맛도 천하 일미였다. 사람들은 이 '천연술'을 '브라술'이라고 불렀다.

그뒤 이 술은 아프리카 여러곳에서 팔게 되었

다.

두달 동안 취한 사나이

중국 위진(魏晉) 시대에 '죽림(竹林)의 칠현(七賢)'이란 명사그룹이 있었다. 가끔 죽림에 모여 가야금을 즐기거나 청담(淸談)을 나누었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나왔다. 칠현의 풍아(風雅)한 모임엔 정치에 대한 거센 저항정신이 깔려 있었다.

모임의 중심 인물 완적(阮籍)은 당대의 일류 명사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왕위를 빼앗을 야심에 불타있던 당시의 대장군 사주소(司馬昭)는 완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사주소는 완적의 딸을 며느리로 맞을 채비를 했다. 이를테면 정략결혼을 꿈꾸었다. 이를 눈치챈 완적은 사주소의 혼담이 나올듯하면 술을몇 갑절 마셨다. 이렇게 혼담의 구실을 안주기 위해 두달 동안 거피 술을 마셨다. 완적은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대장군 사주소는 완적의 주정 전술에 그만 손을 들고 말았다. 그는 한마디의 혼담도 꺼내지 못하고 단념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술도 하나의 무기의 구실을 훌륭히 해낸 셈이다. 대장군도 어쩔수 없었으니.

양주(羊酒)와 마유주(馬乳酒)

몽고와 고려의 관계는 1219년 고려 고종 6년 때 시작, 그 당시 양쪽은 강동성(江東省)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그 뒤, 몽고의 사신이 왕래할 때 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몽고 사람들은 고려에 대해 공물을 요구했다. 이른바 징공사(徵貢使)라 하여 여러 차례 사람이 들어 왔다. 이럴 때면 고려에서 특산물인 포속(布屬)을 주었다. 그러면 그들

은 포속을 그대로 놓아두고 수달피만 가져갔다.

이는 추운 지방에서 수달피가 필요한 때문이었다. 여기에 곁들여 술도 가져갔다. 이 술은 고려의 청주로서 그들이 여행중 필요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후, 원(元)과 고려는 왕실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먼저 충렬왕이 원나라 세조의 딸 제국 공주(齊國公主)를 취해 왔다. 그 뒤 고려 궁중은 원나라의 풍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고려의 충렬왕은 공주와 더불어 원나라에 왕래할 때 왕이 원에서 귀국할 때면 몽고 풍속대로 북경의 교외에서 전벌을 했다.

황제가 보낸 사신과 황태자가 보낸 사신을 비롯, 왕자·왕녀 등 여러사람이 나온다. 이때 몽고인들은 몽고노래를 부르며 술잔을 준다. 그러면 황은 몽고 술을 받아 마시며 노래로써 보답한다. 그들 몽고 풍속은 언제나 술을 사용하였다.

충렬왕 22년(1296)에 세자(후일 충선왕)가 원나라 진왕(晉王)의 딸 보타시린(寶塔寒憐)공주를 취할 때 가장 호화스런 연회를 열었다.

세자는 먼저 '납페'라 하여 백마 81필과 음식으로 유밀과(油密果·약과)를 내어 놓았다. 몽고의 대신들은 고려의 유밀과를 처음 맛보며 즐겼다. 밤이 되어 연회가 무르익어 갈 때는 고려의 악관(樂官)이 고려악을 연주하여 흥을 돋우었다.

한편, 세자가 태후전에 갈 때 태후는 양 70마리와 술 500항아리를 내어 놓아 그 자리에서 연회를 열게 하였다. 연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황제의 처소, 황후의 처소, 태후의 처소, 진왕의 저택, 중서성 등 여러 곳에서 베풀어졌다. 이후부터 고려의 왕이 원의 서울 북경에 들어가 연회에 참여 할 때는 언제나 양(羊)이나 술을 바치었다.

이 술은 몽고의 술로서 양젖(羊乳)을 썩혀서

만든 양주(羊酒), 또 말의 젖을 썩혀서 만든 마유주(馬乳酒)를 썼다.

그들은 몽고식 술을 고려 조정까지 가져왔다. 원래 마유주는 한(漢)시대에 이미 만들었었다. 서역에 있는 고창국(高昌國)에서도 마유(馬乳)로써 술을 빚어 마시었다. 그 술맛은 순해서 그다지 독하지 않아 부녀자도 마실 수 있었다.

충렬왕의 왕비 제국 공주가 고려에 들어와 연회할 때는 대개 몽고식 양주(羊酒)나 마유주를 사용하였다.

유명 사찰의 술과 주점

고려 초기부터 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분명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술에대한 정책도 나오게 되었다. 성종(成宗)2년(983)에 처음으로 주점을 두었다.

그 이름은 성례(成禮), 낙빈(樂賓), 연령(延齡), 영액(靈液), 옥장(玉漿), 희빈(喜賓)등 아름다운 이름이다. 주점은 서울 송도에 두었다.

이로써 불 때 예(禮)·빈(賓)·장명(長命)과 연결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주점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아취(雅趣)있는 이름으로 보아 시인이나 글하는 사람이 출입한듯 하다.

숙종(肅宗) 7년(1102)에는 서울 좌우 두 곳에 술집을 내어 서민들에게 술을 사먹게 했다. 동왕(同王)9년에는 각 주현(州縣)에 명령하여 미곡을 내어 주점을 열게 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장사를 하며 돈을 융통해 쓰도록 했다. 이 무렵 처음으로 철전(鐵錢)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돈의 융통을 원활히 했다. 주점을 내게한 까닭은 여기있다.

그러나 돈의 융통은 불과 몇 해 가지 못했다. 인종(仁宗)초에는 이미 돈의 사용이 증지어 만들어 놓은 돈을 나라 창고에 넣어두는

형편이었다.

그래도 백성들은 여전히 술을 잘 마셨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에서 술을 빚어 마셨다. 승려들은 절에서 술을 빚었다. 승려들은 빚은 술을 일반에 팔기도 하였다.

당시 고려는 승려나 니승(尼僧)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대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왕래할 때는 나라의 기관인 역관(驛館)을 무료로 사용케 하였다. 이 때문에 승려들은 절을 여관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절에서는 사실 여관업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들은 술을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였던 것이다.

현종(顯宗)원년(1010)에는 승려들에게 양조 금지령(釀造禁止令)을 내렸다. 그러나 승려들은 양조는 물론 그 판매를 그치지 않았다. 특히, 절에서 연등회(燃燈會)나 팔관회를 할 때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재를 울리며 등에 불을 밝혔다. 이런 때는 모두 절로 올라가 승려들과 같이 놀며 낭만을 즐기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 밖에 발원문(發願文)을 내며 자기들의 복을 비는 사람도 많았다.

표면상으로는 승려에게 주점을 금지하였으나, 단신자(檀信者)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려의 주점은 깊은 산속에 들어갈 수록 흥건했다. 깊은 산속의 이름난 사찰일수록 언제든지 술을 팔았다. 맑은 물로 빚은 술은 그 맛도 천하 일품이었다.

350년 전통의 술잔

술 먹는 의식 중에서 가장 성대한 것은 로젠버크 시의 '황제의 대배'(카이자포카르)이다. 1618년 독일 국내의 친구 기독교 교도들 사이에 일어난 30년 전쟁 때 로젠버크의 낫슈 시장은 시민들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7파인트(파인트는 0.47 l)들이의 큰 술잔을 만들었다. 여기서

'황제의 큰잔'이란 이름을 붙였다. 용량은 3.29미터. 타우베르강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큰 잔으로 한꺼번에 기울이는 음주 대회를 열었다. 이 모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시장은 350년전의 고사(故事)에 따라 파인트 들이 큰 잔을 기울인다.

주정 꿀 여덟가지

《악마의 사진》이란 책을 지은 A.비어스는 주정뱅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상태, 남들이 볼때엔 최저로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주정뱅이의 꼴도 가지 각색이다. 취하면 우는 사람, 때려 부수는 사람,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정신 병자처럼 웃기만 하는 사람 등등. 이래서 술은 희로애락의 교향악 같기도 하다.

내친구의 한 사람은 술이 취하면 안경을 분지르는 악습이 있다. 그래서 그는 안경값만 해도 한 해에 대단하다.

또 다른 친구는 술만 취하면, 옷을 벗는 버릇이 있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철을 가리지 않고, 더구나 팬티까지 벗는데는 아찔해질 수 밖에. 더구나 여자가 끼어있는 자리라면 일대 사건이 될수 밖에

더 괴상한 친구도 있다. 술만 취하면 술잔을 씹어 박살내 사방에 흩뿌린다. 맥주 유리컵을 와드득와드득 씹는 것을 보면 불가사리처럼 살벌하다.

영국의 극작가 토마스·러시는 주정뱅이를 여덟 가지 꼴로 나누었다.

1. 원숭이 꼴

취하면 날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고향을 지른다. 자유분방하다기 보다는 날뛰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2. 사자 꿀

취하면 술잔이나 접시를 되는데로 던진다. 아내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남들에게 싸움을 건다. 심하면 칼을 들고 누구에게나 덤벼든다. 이를테면 격투형이다, 이런 주정뱅이와 술을 마실때는 방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3. 돼지 꿀

술을 마시면 곧 즐기시작한다. 드디어는 코를 골며 잠을 잔다. 술을 마실 수록 동작이 둔해진다. 집으로 돌아가면 술을 더 달라고 중얼거린다.

4. 양 꿀

혼자 잘났다고 빠진다. 혼자 영리한척 재잘거린다. 발음은 독일어·불어의 혼성적인 그런것이다. 이런 주정뱅이와는 대화가 안된다.

5. 통곡 꿀

술을 마실 수록 흐느껴 운다. 무슨 사연인지 분명치 않다. 옆에서 말리면 오히려 통곡으로 변한다. 이런 주정뱅이는 아예 초상집에서 마시는 게 좋을 것이다.

6. 성자(聖者) 꿀

자기는 취하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다소곳이 잠들어 버린다. 이런 주정뱅이와는 술 마실 맛이 나지 않는다.

7. 산양(山羊) 꿀

여성에게 눈이 빠져 여러 가지 장난질만 친다. 심하면 여자의 치마 속으로 머리를 쳐박기도 한다. 여자의 신성 지대에 눈이 빠져 만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런 족속을 사냥파라고도 한다.

8. 여우 꿀

상대방을 취하게 만든다. 자기는 취한체 하면서 술을 쏟아 버린다. 상대방이 취해버리면 거래를 시작하는 간사한 사람이다

당신의 술은 어떤 것인가

1. 술을 마신 뒤 일을 못한 적이 있다.
2. 술 때문에 집안 싸움을 한 적이 있다.
3. 술 때문에 남한테 꾸중 들은 일이 있다.
4. 마신 뒤 깊이 후회했다.
5.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고 싶다.
6. 안 마시면 잠을 못잔다.
7. 다음날 아침까지 마시고 싶다.
8. 밖에서 혼자 마신다.
9. 마시면 가정 일엔 무관심이 된다.
10. 술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빠진적이 있다.
11.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 마신다.
12. 자신을 얻기 위해 마신다.
13. 불안을 피하기 위해 마신다.
14. 마시면 친구를 알게 된다.
15. 마시면 일의 능률이 커진다.
16. 마시면 향상심(向上心)이 없어진다.
17. 마신 뒤 완전히 기억을 잃을 적이 있다.
18. 마신 뒤 일을 그르친 적이 있다.
19. 마신 뒤 의사의 신세를 진 적이 있다.
20. 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상 20개 항목 중,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3개 있으면 알콜중독성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4개 이상이 있으면 알콜 중독자로 볼수 있다.

파리의 老酒舖 · 엄연한 酒憲

동양 사람과 서양사람, 어느 쪽이 술에 대한 접근이 더 낙천적일까. 칼럼니스트 이면서 애주가였던 멋장이 심연섭(沁鍊燮)은 동양사람보다 서양사람이 술에 대해 훨씬 더 낙천적이라고

잘라 말한적이 있다.

저 유명한 파리의 오페라좌 근처에는 「헤리즈 뉴욕 바」라는 술집이 있다. 현재의 주인은 「앤디」. 이 술집은 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 술집의 창업주는 「헨리 맥얼혼」. 1911년에 이 자리에서 개업했다. 77년의 나이테를 지닌 노포(老舖)다.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우는 1920년대, 미국 청년문학자들의 본거지로도 알려진 「헤리즈 뉴욕 바」.

「카트루트 슈타인」을 비롯, 「핏츠제럴드」, 「헤밍웨이」, 「존 오하라」 등 크게 성공한 문인들이 「헤리즈 뉴욕 바」에 모여 문학을 논하고 자유를 외쳤다.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토론했다. 술에 만취하는 만남의 술집이기도 했다.

「헤리즈 뉴욕 바」는 관광객들의 빠뜨릴 수 없는 빠리의 명소로 되었다. 뜻있는 관광객들은 앞 다투어 이곳을 찾기도 한다.

이 술집 주인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관광진흥의 공로자로, 술집도 술집이지만 훈장을 준 프랑스 정부도 멋이 있다.

「헤리즈 뉴욕 바」에는 주헌(酒憲)이 마련돼 있다. 주당의 현장인 셈이다. 주헌에는 엄연히 전문(前文), 본문이 있다. 전문을 보면 서양사람들과 동양사람들의 술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그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배울 수 있다.

전문(前文)을 옮긴다.

걱정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뿐이다. 당신이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못할 것이냐가 그것이다.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걱정할 까닭이 없다. 성공치 못할 것이라면, 당신의 걱정은 두 가지 뿐이다.

건강이 유지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병든 것이냐가 그것이다. 건강할 수 있다면야 걱정할 까닭이 없다. 만일, 당신이 병뿔었다면 걱정할 것은 또 다시 두 가지가 된다. 희생할 것이냐, 죽어버릴 것이냐가 그 것이다. 희생한다면야 무슨 걱정이라.

당신이 죽는다고 치면, 또 다시 걱정거리는 두 가지 밖에 안된다. 천당에 갈 것이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치자, 그곳에 먼저 가 있을 당신의 옛 친구들과 악수를 하기에 마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주헌 전문(前文)의 결론은 간단하다. 이래저래 세상 걱정거리라곤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망우(忘憂)의 명언이다. 낙천적 얼마나 낙천적인 말인가.

「헤리즈 뉴욕 바」는 IBF의 세계본부이기도 하다. FBI(미연방수사국)와 혼동하면 큰일이다. IBF는 「인터내셔널 바 푸라이즈」의 약자이다. 술냄새를 맡고 이 술집 저 술집으로 폐지여 날아 다니는 주당들의 모임이다.

IBF현장은 14개조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1조

IBF는 진지한 주객들의 흥망성쇠에 간여코자 하는 성스러운 비밀결사이다. 「진지」, 「흥망성쇠」, 「비밀결사」 등의 문구가 익살스럽다.)

제2조

회원은 동료들에게 술을 살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에는... 친구 사이에 10년쯤 기다리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주당의 우정과 기다림의 느긋함이 얼마나 낙천적인가)

제3조

긴 밤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바」에도 나오지 않고 집 구석에서 화투나 치고 있는 회원은 즉각 사표를 낼 것.(풍센님들 에겐 아예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현장조문은 꽤 엄격하다. 낙천가가 아닌 사람은 아예 얼씬도 말라는 뜻이다.)

제4조

새벽 5시에 「바」에 나와 연습도 없이 「우쿨렐레」를 연주할 수 있는 회원은 종신회원의 자격이 있다.

(얼마나 낙천적·낭만적인가.범인들로서는 흉내

도 내기 힘든 괴짜이다. 이런 사람에게 종신회원의 자격을 준다니...

제5조

성스러운「바」에서 턱을 괴고 잠을 자는 회원은 10일동안 회원 정권처분을 받는다.
(성스러운「바」엔 벌칙이 엄하다.)

제6조

「바」의 수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은 「바」옆에 정형외과가 24시간 개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불한당 짓을 하는 회원에게 넌지시 경고한 말이다.)

제7조

회원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변기안에만 「배설」을 해야한다. 되도록이면 자가용 걸레라도 지닐 것.
(신사도를 벗어난 회원에게 은근히 주의를 불러 일으킨 조문이다.)

제8조

술을 여섯 잔 이상 마셨을 때에는 친밀의 표시일지라도 서로 등을 두들기는 것을 삼가할 것. IBF회원 중에는 틀이를 해 밖은 사람도 많으니까.
(주헌은 용의주도하게 신경 쓴 흔적이 엿보인다.)

제9조

「바」에서 만취하여 환상의 동물이 보일 때에는 옆사람에게 발성하지 말것. 「바」는 동물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매너를 강조한 익살스런 표현이다.)

제10조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여인」에의 추억 때문에 「바」에서 눈물 흘리는 회원은 그날밤 술값을 부담해야 한다.
(벌칙도 가지가지. 울어도 속으로 울어야 하니...)

제11조

회원은 「집 위에는 지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영어로 「온더하우스」하면, 술값을 「바」에서 부담한다는 뜻, 공술 마실 생각은 아예 버리라는 경고이다.)

제12조

제13조

「바」앞에서 당신자리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명심할 것.
(분위기를 깨거나 앉은 자리에서 고주망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뜻도 들어잇는 듯...)

제14조

이 현장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회원은 그 벌로서 그날 그 「바」에 재석한 회원 전원의 술값을 지불한다.
(벌칙이 매우 주당적(酒黨的)이다. 살벌하지 않아서 인간적이다.)
세계의 관광명소 안내에 빠리의 「헤리즈 뉴욕 바」가 어째서 빠졌을까. 우리나라의 뜻 있는 주당들도 빠리에 가면 한번 짚 찾아볼만한 곳이다.

舊韓末의 酒稅法, 酒造工場

구한말, 주세법이 공포된 것은 1909년 2월 13일 「朕이 酒稅法을 裁可하여 茲에 公布케 하노라. 隆熙 3年 2月 8日, 御命御璽」 이렇게 된 주세법 공포문엔 내각총리 대신 李完用, 度支部大臣 任喜準, 法部大臣 高永善의 連署가 적혀있다.

전문(前文) 14조와 부칙으로 된 공포문 제6조의 주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類 釀成酒

5石까지 金1圓

10石까지 金2圓

20石까지 金4圓

50石까지 金10圓

100石까지 金20圓

100石을 초과하는 자는 50石까지를 증(增)할 때 마다 金 10圓을 가(加)함

第 2 類 蒸溜酒

1石까지	金1圓
2石까지	金2圓
5石	金5圓
10石	金10圓
20石	金20圓
50石	金50圓

50石을 초과하는 자는 30石까지를 증(增)할 때 마다 金 30圓을 가(加)함.

第 3 類 混成酒

2石까지	金6圓
------	-----

5石까지 金15圓

10石까지 金30圓

20石까지 金60圓

50石까지 金150圓

50石을 초과하는 자는 30石까지를 증(增)할 때 마다 金90圓을 가(加)함

1910년 1월 1일 현재, 전국 주류 제조장 수는 다음과 같다.

▶ 1류 125,487장

▶ 2류 30,314장

▶ 3류 43장

소계 155,805장

세액 201,959圓

주저말고 자수하면 자유인이 절로된다